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9. 29(일)	담당부서	무역정책관실
담당과장	권덕중 과장(044-203-4068)	담 당 자	한해원 사무관(044-203-4031)

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
- 일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및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(수석대표 : 권덕중 과장)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**'19년 추계 전문가그룹**(EG : Expert Group) 회의 참석 기간(9.23~27) 중,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, **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**하고 **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**하는 등 **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**을 전개하였다.

□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 계기에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에서의 그간 **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**하며,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과 동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**부정적 영향**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**다자체제차원**의 **관심을 촉구**하였다.

○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**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**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본 측이 **정치적 목적**으로 **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**하여 **일방적·자의적 수출규제 조치**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하고,

○ 이러한 일본 측의 조치는 **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**할 뿐 아니라,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**나쁜 선례**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하였다.

○ 더불어,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 **일본 측의 조치는 즉각 철회**되어야하며, 한-일 양자차원을 넘어, **다자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**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**바세나르체제 EG 회의**는 42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·기술의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로, 올해는 **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총 102건**의 **논의 의제를 제출**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참석국중 **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출**하였다.

< 바세나르체제(WA) 전문가그룹(Expert Group) 회의 개요 >

○ 기간/ 장소 : `19.9.23(월) ~ 10.4(일) / 오스트리아 비엔나 바세나르 사무국

○ 4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약 100여건의 WA 품목·기술 통제기준 개정을 검토 및 논의

- 일본의 3대 수출통제 품목 중 폴리이미드, 레지스트가 WA 통제품목에 해당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**4대 국제수출통제체제**를 중심으로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**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**하고 **공감대를 확보**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한해원 사무관(☎ 044-203-40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